

투데이 칼럼

북한의 중산층

'중산층'은 '중간 정도의 소득이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다. 북한에도 자만에 따른 중산층이 있다. 북한의 공식 통계가 없으니 명확히 확인은 어렵지만 그런 사회계층이 존재한다. 이들은 생활양식과 소비에서 남다른다.



정복규
논설위원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한 문수 물놀이장은 2013년 평양 대동강 구역에 들어섰다. 실내와 수영장과 파도풀, 20개가 넘는 슬라이드를 갖춘 북한 최대의 워터파크이다.

입장료는 북한 돈 약 2만 원으로 상당히 비싼 편이다. 근로자의 공식 급여가 월 3천 원 수준인 걸 감안하면 7개월을 꼬박 모아야 한다. 문수 물놀이장을 찾은 이들은 구매력이 높은 계층이란 걸 짐작할 수 있다.

최근 이 같은 재산 축적과 그에 따라 등장하고 있는 북한 중산층 연구가 관심을 끌고 있다. 북한의 중산층은 권력형, 전문가형, 상업형 등 세 부류가 있다.

상업형 중산층은 가장 광범위한 사회집단을 포괄하고 있는데 이들은 장사나 무역 사업 등 시장경제활동 등 통해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다. 신분적 토대를 중요시하는 북한이지만 이들은 시장 경제에 적응하고 활용해 경제력을 갈수록 키우고 있다. 북한의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의

일반적인 공식 급여는 몇 천 원이다. 때문에 대부분 전 국민들이 투잡을 갖고 있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기에 월급은커녕 배급조차 끊어진 상황에서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자발적으로 시장을 만들고 키웠다.

공식적인 국가 경제는 침몰 상태에 몰렸지만, 개인에겐 부 축적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20년 넘게 이뤄져 온 이 같은 시장화로 '돈주'로 불리는 자산가들이 생겼다.

중산층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이제는 북한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무엇보다 내수 경제 활성화에 큰 자극을 주고 있다.

당국도 이런 구매력을 갖춘 계층을 겨냥한 서비스 산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엔 우리의 복합 쇼핑몰과 유사한

대형 상업 시설들이 들어섰다. 평양 창전거리에는 해맞이 종합식당이 세워졌다. 보통강 구역에 들어선 류경미관관은 전문 식당가와 함께 레저 스포츠 시설에 이머용 전문점도 입점해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심지어 전문 바리스타가 상주하는 커피 전문점도 김 위원장 시대 들어 집중적으로 생겨났다. 커피 한 잔 가격은 우리 돈 6천 원으로 북한에선 꽤 비싼 편이지만 찾는 사람은 늘고 있다.

피자, 스파게티, 초밥과 같이 해외 음식 전문점들도 주민들을 맞이하고 있다. 지방 역시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중산층들의 구매력은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다.

북한 당국은 중산층의 자산 축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경계하고 있다.

이들의 자본금을 '지원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거둬들이는데 설립집 건설, 농촌 지원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상업형 중산층에 속하는 주민들에게 상납금을 받아 국가에 적을 둔 노동자들에게 분배하기도 한다. 중산층의 등장과 성장을 어쩔 수 없이 일정 부분 용인하지만 절대 권력은 북한 당국이 쥐고 있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경제력과 소비를 욕망하는 중산층이 북한의 현 체제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 그리고 일부 유럽의 체제 전환 국가들 사례를 보면 중산층의 성장이 반드시 정치적 변혁을 가져 오진 않는다.

이런 나라들의 중산층은 국가 권력과 협력해서 자신의 기득권이나 지위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북한도 그런 모습이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국경 봉쇄가 장기화해 경제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북한 중산층에게 큰 위기가 일어났다. 이들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적 사회적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설

정운천 7년 연속 예결위원

국회의원 정운천 국회의원이 지난 7월 전북도당위원장에 임명됐다. 특히 정 위원장은 올해도 국회 예결위원으로 확정됐다. 전북 국가 예산 확보의 첨병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 위원장은 재선 국회의원으로 7년째 예결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그는 전북 발전을 위해서 전북도와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김관영 도지사에게 전북도청 3급 정책협력관을 국민의 힘 인사로 요청했다.

김 지사도 이를 받아들였다. 지역 정치권과 집권 여당 도당 위원장이 지역 발전과 현안을 놓고 활발하게 소통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전북 정치권을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야당 신분으로 바뀌며 기재부 등 예산부서의 협조도 어렵다.

정 위원장은 지난 6년간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며 구축된 의원실·기재부-지사체 하타인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전북은 인구 감소와 산업기반 취약 등 낙후가 심각하다. 새만금을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여 기업 유치를 이끌어야 한다. 공화과 신항만, 도로, 철도 등 지자부진했던 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때이다.

정 의원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참여했다. 전북 현안에 대해 꼼꼼하게 챙긴 결과 전북 26개 실천 과제를 46개로 확정 지었다.

그러나 이는 여당 국회의원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여야 쌍방용 정치로 풀어나가야 한다.

국회의원 전북 동맹의원들과 함께 전북 예산을 챙기고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한다.

정 의원은 지난 10년간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극복하지는 신념을 가지고 정치 활동을 이어왔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낙후된 전북 발전을 위해 온 힘을 쏟기 바란다. 전북 정치권에 작지만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피스로드 2022 전라북도 통일대장정

신통일한국 피스로드 2022 전라북도 통일대장정 10주년 행사가 최근 전북도청 광장과 전주공설운동장 일원에서 열렸다. 행사는 평화통일지도자 전 북협의회와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전북지회가 공동 주관 했다.

이날 행사는 광복 77주년 기념과 세계 160개국 동맹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기원하는 자리였다.

세계연합종주단 단원과 전북 자전거타기운동본부 회원 등 50여 명은 전북도청 광장을 출발해 홍산교, 통일광장 사거리, 백제교를 거쳐 전주종합경기장 청소년 광장까지 5km를 종주 했다.

송광석 한국실행위원장은 "10 회째를 맞는 피스로드는 그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기 위해 쉬 없이 달려왔으며, 지난 7월 27일에는 독일 베를린에서 피스로드를 개최하는 등 세계 160개국에서 동참하는 글로벌 평화 운동으로 확산되었다"고 말했다.

올해 피스로드는 지난 5월 선문대에서 국제대학생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종주단 발단식을 가졌다.

이어 한반도 평화 통일을 열원하며 부산과 목포에서 파주 일진각까지 국토 종주를 하게 된다.

도내에서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6일 일진군, 7일 군산시, 13일 순창군, 17일 진안군, 21일 익산시 등 10여 개 시군에서 8월 중 실시하고 있다.

피스로드를 통해 남북한 공동 번영의 신통일한국 시대를 열어가는 데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이는 통일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가 되어 남북관계 변화의 마중물이 되는 일이다.

전라북도 피스로드가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의지를 다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한반도 평화 통일을 앞당기는 발판이 되고, 세계 평화의 주춧돌을 놓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미사일 공격으로 파괴된 오데사 리조트 건물



1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오데사에 있는 리조트 건물들이 최근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파괴된 모습이다.

시진핑, 선양 로봇자동화 기업 방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7일(현지시간) 중국 랴오닝성 선양의 시아산 로봇자동화회사 전시장을 방문해 기업의 과학기술 혁신 추진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